

<2018년 8월 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 선생은 방금 우물가에 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300명에게 설교해 주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 만날 때 잔디밭이고, 굴속이고,

산이고, 절벽이고 가서 기도하기 바빴다.

나는 목표가 딱 하나 있어서 그것을 두고 늘 기도했다.

사람들은 성경에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혹은 ‘사무엘’ 같은 사람, 혹은 ‘모세’ 같은 사람,

혹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기도했으나

선생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시대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은 다른 기도를 했다.

나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기도를 10대 때부터 했다.

그러면서 인생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고 싶다고 했다.

결국 어떻게 구원하나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하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1. <과거의 삶>을 또 진행하는 것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다.
2.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대로 해 줄 테니까 책임은 네가 져라.” 하셨다. 그러니 잘 보고 원하는 것을 택해야 된다.
3. <인생살이>는 ‘물건을 사는 것’과 같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택할 수 있어도, ‘이 물건을 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택했어도 계속 만족하며 살기 어렵듯, <인생>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유의지의 삶’을 주셨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하고, 계속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4. 사람들을 보면, 돈을 벌어서 먹든지, 혹은 환경을 만드는 데 쓰든지, 혹은 건강을 위해 쓰든지 - 이런 것들을 위해 수고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이나. 이러다 죽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면 고통이나 안 겪지.” 한다. 그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다. <영원한 세계>를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5. 만일 <영원한 세계>가 없었다면, 육신이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나은 것도 있다. 그러나 ‘영혼’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 ‘영의 문제’를 해결해 놓

으면 영원히 이상 세계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게 된다. 고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6.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한 것은, 가롯 유다가 자기 영혼을 말살시키고 지옥에 가게 됐으니 그리 이야기하신 것이다. <지옥>은 참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영원히 받고 사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7. <자기 영혼을 말살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낫다. - 이 말씀은 ‘가롯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낫다. 그만큼 ‘지옥’은 참고 견디기 힘든 세계라는 것이다.

8.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택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크다. <시대 보낸 자>도 ‘복음’으로 시대의 따르는 자들을 낳았기 때문에 ‘영혼의 부모’가 된다. 고로 큰 책임을 가진다. 다만, <따르는 자들>도 자기가 지옥에 안 가게 큰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9. <지옥에 대해 배우고 안 자들>은 ‘지옥에 안 가는 것’을 우선권으로 해야 된다. 지옥에 안 가려면,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 이것만 하면, 지옥에 안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왜 지옥에 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악한 일도 안 했는데? 악한 일을 했다고 지옥에 갈 필요가 있어?” 한다. 자기에게 해가 오니, ‘영의 세계’를 묵살시키고 없다고 해버리는 것이다.

10.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영의 세계를 안 믿고, 보낸 자를 안 믿는다. 안 믿으면 자기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여지없이 손가락 하나라도 지옥에 간다.
11.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행해야 된다. <기계>에서 100% 몸이 빠져 나와야지, 90%만 빠져 나오면 발목이 끊어지든지, 손목이 끊어진단다. 그러니 100% 해라. 그리함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되지 말아라.
12.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는 서로 극적인 스틸과 쾌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난자>와 <정자>가 일체 되어 자녀를 낳게 된다. 누구든지 ‘극적인 사랑 세계’에서 낳은 것이지, ‘사랑’ 없이 낳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고로 자녀를 기를 때는 ‘사랑’으로 길러야 된다. <사랑>으로 기르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13. 모두 <사랑>으로 낳았기에 낳은 자도, 낳음을 받은 자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14. 선생도 <이 시대 복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낳았으니, 책임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면서 ‘사랑’으로 기른다. <사랑>으로 안 기르면,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15. <사랑으로 기를 때>는 ‘신성적인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신성적인 사랑>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의 사랑’이다.
16.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으로 태어났다. 처음에 인간은 <지구>로 인해 시작됐다. <지구>는 ‘태반’으로서 난자와 같은 어머니 역할과 정자와 같은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두 세계가 일체 되어 ‘물질, 육신’이 태어나고, ‘영’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에 넣으심으로 태어났다. 모든 만물의 이치는 동일하다. 하나님은 태초에 ‘지구’를 가지고 이같이 창조하셨다. <지구>를 어머니와 아버지같이 만드시어, ‘두 세계, 두 성분’이 일체 되어 생명체를 이루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인간을 아름답고 멋있게 만드셨다.
17. 지금은 ‘극치의 때’로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없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든 세계에서 결혼식을 하신 것이다. 가령 한 여자가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면 점차 예뻐지고 멋있게 되고, 그러다 ‘극치의 때, 최고 예쁠 때’에 결혼식을 하듯, 이같이 하나님도 지구를 창조하시고 ‘최고 극적으로 발달한 시대, 인간이 최고 아름답고 멋있게 됐을 때’ 곧, 이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결혼식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역사해 오시면서, 이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18. <생각>이 일체 되면, 그리도 기쁘고 흥분된다. 고로 하나님은
‘생각이 서로 하나 된 시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때’
에 맞춰서 결혼식을 하신 것이다. 곧 ‘창조 목적’을 이룬 것
이다.

19. 하나님은 지구상에 ‘미(美)의 세계가 완전히 꽃을 피울 때’에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정녕코 이루셨다. - 이 일을 했기 때문
에 <한 자>는 안다.

◎ 지금까지 말씀하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사랑으로 낳았으니, 사랑으로 길러라.” 하는 말씀도 해 주었습
니다. <사랑>으로 말씀하고,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자녀’를 인정해 주고,
<자녀>는 ‘부모’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로 인정해 주고, 믿어주며 살기 바랍니다.

20. <지금>이 중한 때다.

21. <이때>는 중한 때니, ‘결정’을 잘해야 된다.

22. <지혜>는 판단이다.

23.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해라. 그냥 하면 안 된다.

2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때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중요한 때다.” 하셨다.

25. 선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라. 운영을 잘하고, 그때마다 모두를 잘 인도해 줘야 하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으니,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 이 됩니다.